

“한국의 가톨릭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평

노길명

(고려대학교)

I

한 시대 또는 한 사회에서 특정 종교가 수행한 결과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그 종교의 이념과 활동이 개인과 사회에 대해 어떠한 기능적 결과를 가져 왔는가 하는 점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러한 기능적 결과가 애초부터 의도한 현재적 기능(顯在的 機能, manifest function)으로 나타났는가 아니면 예기치 않은 결과로 나타난 잠재적 기능(潛在的 機能 latent function)이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따라야 한다.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제도적으로 전문화된 종교는 사회질서의 통합과 현상유지(現狀維持, status quo)에 대해 정당화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특정한 역사적 상황이나 종교집단 내부의 조건 변화에 따라서는 사회변동의 촉매자로 기능할 수 있다. 만일, 종교가 사회변동의 촉매자로 기능하였다면, 그 원인과 방식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II

발표자는 1970년대 이후 한국 가톨릭교회가 전개한 인권운동과 정의구현운동,

그리고 민족화해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가톨릭의 사회적 기능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 쇄신의 길잡이로서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강조하면서 그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논평에 앞서,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발표 원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한다. 우선, 발표자는 한국 가톨릭교회가 1970년대에 전개한 사회참여활동을 ‘인권회복운동’이라 명명하고, 1980년대에 전개한 활동은 ‘정의구현운동’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운동은 별개의 운동이 아니라, 같은 운동의 또 다른 호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 운동들은 운동의 신학적 배경이나 주제, 배경, 방법 등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표자는 “기존 사회질서에 길들여져 권력이든 금력이든 가진 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시키는 데 이바지”하던 “가톨릭교회의 선교방향이 민중과 사회의 실제 삶에 대한 관심으로 본격적인 방향 전환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고부터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국 가톨릭교회는 교회창립 초기부터 봉건사회 질서의 청산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1세기 이상 정치 권력에 맞섰던 경험을 갖고 있으며, 1950년대에는 이승만정권의 부패와 독재에 투쟁함으로써 숭한 박해를 받기도 하였다. 1970년대 이후 한국 가톨릭 교회가 전개한 인권운동이나 반독재투쟁은 가톨릭의 사회교리와 함께,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발표자의 원고에서는 그동안 한국 가톨릭교회가 전개해온 활동들을 옹호하고 홍보하는 듯한 인상이 강하게 풍기고 있다. 또한 한국 가톨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는 가톨릭의 사회적 기능보다도 선교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불가치성(沒價値性)을 강조하는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호교론적(護敎論的) 관점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은 객관적이고 법칙정립적인 연구에는 물론 종교의 발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발표 내용은 현대 한국 가톨릭교회의 사회사목(社會司牧)의 내용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현대 가톨릭 교회의 사회교리에 정통한 발표자가 “현대 교회의 사회론이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과 만나 ‘그리스도풀이’(Christ-therapy)로, 그리스도의 평화로 이끌어 가는 길을 찾는 작업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기능 수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은 한국가

톨릭의 사회사목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방법은 물론 한국 가톨릭교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 생각된다.

III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 하나는 종교와 정치,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제도종교의 인식과 대응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종교나 정치는 모두 인간의 실존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보다 나은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따라서 양자의 관심사는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에서는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만일 관심의 내용과 방법이 동일하다면,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기존 체제의 통합과 유지의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갈등과 해체로 나타날 것이다.

한편,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보다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제도종교의 인식과 대응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광복 후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이데올로기로서는 친미·반공이데올로기와 성장 이데올로기가 지적되고 있다. 친미·반공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지배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민족의 분단과 대립을 심화시켰고, 성장 이데올로기는 물질주의와 물량주의·개인주의·경쟁주의·업적주의·권위주의와 같은 바람지하지 못한 사회 풍조들을 확산시키고 증폭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수많은 사회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제도종교들은 이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로부터 초월하였는가, 아니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또 아니면 그러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생산과 사회적 확산에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한국 종교들의 사회적 기능은 물론 한국 종교의 역기능이나 한국종교계의 문제점들을 구명하는 중요한 분석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